

輪島塗

歴史

輪島塗の発祥は、約1000年前の大陸伝来説、15世紀初めに輪島に来た根来僧が普及させた説、近くの柳田村に伝わる合鹿碗[ごうろくわん]が原型という諸説があるが、文明8年(1476年)には輪島に塗師がいたことは明らかになっている。天正10年(1582年)加賀藩主の能登巡行の際、すでに輪島塗の特徴である地の粉が使われており、輪島独自の加飾技法である沈金[ちんぎん]は18世紀に完成、蒔絵[まきえ]は19世紀初め会津からもたらされている。

漆器の販売は塗師屋[ぬしや]が商品見本を背負い全国各地を行商してまわり、販路を拡大していった。特に、18世紀から講組織による販売が加わり、飛躍的に需要が伸びるとともに品質向上がはかられた。また、北前船によって全国に運ばれ、その名声を広げていった。

特色

堅牢な塗りと加飾の優美さを特徴とし、日本を代表する漆器として高く評価されている。

特に、輪島特産の地の粉(珪藻土の一種)を下地に塗り、塗り上げるまでに20工程以上、総手数では75~124回にも及ぶていねいな手作業で作られるため、堅地漆器の名声を博している。

さらに、木地の外側や損傷しやすい箇所には漆で麻布を貼る布着せの技法や地付けの際、下地が剥離破損し易い上縁に桧皮笥[ひかわべら]で生漆を塗る地縁[ちぶち]引きが、漆器の品質と堅牢度を高めている。

また、加飾にも優れ、特に、沈金技法は輪島で完成したといわれ、多くの名工を育ててきた。

昭和52年4月25日国の重要無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



와지마칠기

역사와 특색

와지마칠기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약 1000 년 전에 중국에서 전래했다는 설, 15 세기 초에 네고로테라 절에서 승려가 보급시켰다는 설, 야나기다무라에 전해오는 고로쿠완이라는 그릇이 원형이라는 등 여러가지 설이 있다. 발상이 어떻든 1476 년에는 와지마에 칠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1582 년 가가번주가 와지마를 방문했을 때, 칠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지노코'(규조토)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18 세기에는 침금기술이 완성돼 있었다. 19 세기 초에 후쿠시마의 아이즈로부터 마키에 기법이 소개됐다.

와지마칠기는 다양한 기술을 구사해, 그 아름다움과 견고함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칠기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輪島市(와지마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飲食什器、室内裝飾品、茶道具(음식잡기, 실내장식품, 차도구)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輪島漆器商工業協同組合(와지마칠기 상공업 협동조합) 〒928-0001 輪島市河井町24-25(와지마시 가와이마치 24-25) TEL (0768)22-2155 FAX (0768)22-2894 MAIL info@wajimanuri.or.jp http://www.wajimanuri.or.jp